

제23회 무안연꽃축제 성황리 폐막

회산백련지에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주제로 4일간 개최



무안군이 주최하고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23회 무안연꽃축제

제가 지난 28일 마지막 공식행사인 군민노래자랑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는 동양최대의 백련자생지인 무안회산백련지에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로 4일간 개최되었다.

아이스존, 연잎들고 백련지 걷기, 황토굴 무안요리 경연대회, 모바일 스텝투어 등 8개분야 85종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축제기간이 중부지방 장마기간과 겹쳐 날씨가 궂음에도 불구하고 4일동안 예년보다 많은 관객

들이 축제장을 찾아 축제기간동안 성황을 이루었다.

축제 마지막날 열린 군민노래자랑에는 무안군 기관사회단체와 9개 읍면의 군민 대표가수들이 출연하여 재능과 끼를 뽐냈고, 초대가수로는 진시몬, 배일호, 박해신 등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하여 무대의 흥을 더했다.

이번 축제를 주관한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장마로 궂은 날씨에도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어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무안연꽃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대표 여름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임자도서 '섬 민어축제' 개최

내달 3일부터 2일간

신안군은 국내 최대 길이(삼십리, 12km)의 백사장을 자랑하는 임자도 대평해수욕장에서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섬 민어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난타공연, 판소리를 시작으로, 민어회찜기 퍼포먼스, 민어회 달걀 만들기, 수산물 깜짝경매, 임자대동놀이 등이며, 부대행사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바다환경보전을 주제로한 바닷길 걷기 명상 '공감', 물고기프린팅체험 'T-셔츠', 폐북채를 활용하여 물고기를 만드는 '1004물고기와 초록바다' 등으로 편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민어는 비만증,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중풍,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여름철 더위를 물리치는 최고의 음식으로 오징어류의 기운을 돋우고 뼈를 튼튼히 하는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맛이 좋고 독이 없으며, 부레는 어표라고도 하는데 파상풍을 치료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될 만큼 병약자, 노인, 어린이들의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여름철 대표 수산식품이라고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바다에서 잡히는 민어회, 민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또한 금빛 모래가 드넓게 펼쳐진 해수욕장과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 '제2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 공개 모집

내일까지 접수

진도군이 제2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심과 열정으로 뛰는 SNS 홍보대사로 보배섬 진도군의 독특한 매력을 인터넷상에 널리 알릴 '제2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30여명 내외로 모집한다.

대상은 지역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사진·동영상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된다.

진도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초순 경에 발표한다.

군은 SNS 서포터즈에게 게시물에 대한 원고료와 우수 게시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관계자는 "진도군의 주요 축제, 문화·관광 등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공유하고 보다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 온라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며 "무궁무진한 보배섬 진도군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흥미거리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진도 홍보도우미가 돼 줄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제2기 SNS 서포터즈 지원자는 진도군 페이스북(www.facebook.com/00jindo00),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메일(chnews123@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조상홍 기자

해남군,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 운영

해남군은 찾아가는 평생학습서비스 하반기 늘찬배달강좌가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하반기 늘찬배달강좌는 노래교실, 요가 등 인기강좌와 더불어 밸리댄스, 창의융합리딩 등 새로운 강좌도 개설 총 98개팀 1,2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운영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확대해 112개팀, 1,392명의 주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상반기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해남군은 100세 시대 군민 평생학

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인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를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늘찬배달강좌를 통해 매회 100팀 이상이 다양한 강좌를 신청하고 있으며, 해남읍에서 멀리 떨어진 송지, 문내, 화원 등 먼단위의 교육신청이 전체강좌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진군, 과수화상병 유입방지 총력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경기 및 충북지방 과수 재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화상병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 관내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유입방지 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농가 예방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식물의 잎과 꽃, 과일, 가지 등에 광범위하게 발병하며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모

양으로 식물 조직이 검게 말라 죽어간다.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된 과원은 폐원해야 하고 재배는 물론 과실 수출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과수 산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과수 화상병은 비, 바람 곤충류,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감염되고 특히 고온에서 전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름철 예방과 방제가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방 방법은 과수원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과수원 출입 시 사람과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하고 과수 화상병 발생 지역과 인근 과원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강진=김영민 기자

목포시, '스윙' 공연 영상 무료 상영

내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31일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19시 30분부터 국립현대무용단의 댄스 '스윙' 공연 영상을 대형스크린으로 무료 상영한다.

댄스 '스윙'은 매 작곡마다 라이브 음악과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여온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감독이 스윙재즈밴드 '젠블렌 앤 갱스터즈(Gentlemen & Gangsters)'와 만나 만들어졌다.

정통 뉴올리언즈 핫 재즈 스타일 음악을 추구하는 스웨덴의 남성 6인조 밴드 '젠블렌 앤 갱스터즈'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스윙재즈 라이브 연주에 안성수 안무가 특유의 밀도 있는 구성, 뛰어난 테크닉과 섬세한 표현력을 가진 최수진, 성장용, 매튜 리치, 안남근 등 국립현대무용단 17명 무용수들의 춤이 어우러져 한시도 지루할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Sing Sing Sing', 'In the Mood', 'Mack the Knife' 등 너무나 익숙한 스윙재즈 음악부터 'Bugsy', 'Ljubljana Swing' 등 새로운 스타일의 재즈까지 16곡의 재즈 음악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용수들의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다.

서울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창작발레 '심청', 4월 연극 '페리클레스', 5월 연극 '보물섬', 6월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공연에 이은 다섯 번째 우수 공연작품 영상 상영이다.

'SAC on Screen'이란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으로 우수 공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며 지역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공모 신청해 선정됐다.



영암도기박물관, 군민대상 도예강좌 운영

영암도기박물관은 하반기 기초도예 강좌 생활도예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을 오는 8월5일~28일까지(신청순 15명) 모집한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운영하며 3개월간 운영되는 생활도예교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영암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적인 도기 빚기와 장식기법을 토대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가의 지도로 다양한 성형 및 장식기법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직접 빚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